



외국인 범죄 보도에 대한 감성분석 과잉재현, 추세 분석, 매체별 양상을 중심으로*

최창식 부산대학교 교육인증원 강사**

국내 거주 또는 체류 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수용성은 그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미디어에 투영되는 외국인과 이주민의 부정적 이미지다. 특히 언론에 의한 범죄의 과잉재현은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공포감을 실제 이상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회적 불안감과 긴장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다문화주의의 안착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범죄 보도의 과잉재현을 양적인 측면과 보도 속 표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특히 표현에서의 과잉재현을 실증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 가운데 하나인 감성분석을 이용하여 외국인 범죄 보도에 나타난 감성적 태도가 내국인 범죄에 대한 그것과 다른지를 진단하였다. 2000~2020년 기간 세 가지 유형 18개 언론 매체에 보도된 총 19,886건의 5대 강력범죄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범죄는 실제 범죄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로 보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사 속 표현에 나타난 태도에서는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는데, 외국인의 범죄는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 또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한편 매체 유형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역지는 전국지나 지상파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범죄를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외국인, 강력범죄, 범죄 저널리즘, 감성분석, 다문화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8672).

** choics1@pusan.ac.kr

1. 들어가며

2023년 3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약 234만 명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체류자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3). 외국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 규모 축소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노동력 수용 및 다문화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이혜진·조운오, 2022), 2020년대 중·후반에는 외국인과 이민자의 규모가 전체 인구의 5%까지 늘어나면서 한국은 OECD의 기준에 따라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다(BBC News 코리아, 2020).

그러나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은 그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김찬중, 2019; 여성가족부, 2022). 한국인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로는 오랜 기간 이어진 단일 민족 중심의 문화로 인한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부족, 그리고 집단주의적 가치 등이 거론된다(김선미, 2011; 이인화·황경아, 2013). 이러한 문화적 환경과 함께 배타적 태도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미디어에 투영되는 외국인과 이주민의 이미지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구성원들이 공유해 온 집단적 인식과 태도, 그리고 가치관의 재정립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간접경험의 제공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강화한다(김승환, 2013; 김은미·조운용·임영호·송보영, 2015). 그러나 문제는 미디어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태도의 간접경험만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가 국내의 외국인과 이주민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비록 매체에 따라 다소의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주류사회 테두리의 바깥에 있는 동화(同化)의 대상, 그리고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는 의존적 존재로 그들이 그려

지고 있음을 지적한다(김경희, 2009; 신예원·마동훈, 2019; 양정혜, 2007; 채영길, 2010).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보도 태도를 살핀 연구는 특히 신문이 그들을 빈번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발견하기도 했다(임양준, 2012).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 관련 범죄 보도다. 지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외국인 및 이주민 증가가 범죄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기는 비율이 41.5%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에 의한 일자리 감소(29.1%)보다 더 큰 위협 인식 비율이었다(여성가족부, 2022). 이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범죄 통계와 범죄 관련 기사 건수를 분석한 한 연구는 실제 범죄 발생률보다 현저히 더 높은 비율로 언론이 외국인 범죄 기사를 보도하는, 이른바 ‘과잉재현(over-representation)’ 현상이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살인 등 강력범죄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박상조·박승관, 2016, 162쪽), 이주노동자 범죄 보도 노출 빈도와 타인종에 대한 공포(xenophobia) 및 부정적 인식과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우충완·우형진, 2014)나 언론을 통한 외국인 범죄 노출이 사회적 위협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허윤철·임영호, 2015), 그리고 외국인 범죄 뉴스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부적 관계(허윤철·임영호, 2016) 등에 이 결과를 비추어보면, 언론에 의한 범죄의 과잉재현은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공포감을 실제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생산하면서 사회적 불안감과 긴장을 증폭시키고 나아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여겨진다.

이에 이 연구는 이러한 보도를 통한 외국인 범죄 과잉재현을 양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문제점을 짚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이 시점에서 언론 보도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기법 가운데 하나인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외국인 범죄 보도에 나타난 감성적 태도가 내국인 범죄에 비해 더 부정적인지를 언론사 유형

별로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보도 표현 측면에서의 과잉 현상을 진단하고자 한다.

감성분석은 문장과 단어에 내재한 비중립적 주관성(subjectivity) 요소를 문장과 단어에서 추출하여 그것의 긍·부정 극성(polarity)과 빈도, 정도성(degree)을 산출하는 것이다(남길임·조은경, 2017). 이는 연구자의 주관 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 대상 텍스트의 감성적 태도를 계량화할 수 있는 기법으로,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그간 SNS(social network services) 메시지나 소비자 분석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어 왔다(Pang & Lee, 2008). 또한 언론 보도 분석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선거 보도 속 정치인의 이미지, 젠더 및 인종에 대한 보도 태도(Khoo, Nourbakhsh, & Na, 2012; Young & Soroka, 2012), 경제 보도와 경제 지표 간의 관계(김유신·김남규·정승렬, 2012; 이현서·송민, 2018),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박종민·정영주·주호준·김현우, 2020), 언론의 정파성 분석(최창식·임영호, 2021) 등에서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외국인 범죄 보도에 나타난 감성 표현의 양상을 내국인의 그것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몇 가지 학술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먼저, 양적인 과잉재현(박상조·박승관, 2016)을 넘어 보도의 태도, 즉 표현의 차원에서도 외국인 범죄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과잉되고 있는지를 진단함으로써 향후의 외국인 및 이주민 보도 연구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범죄 보도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는 가해자에 대한 인종적·민족적 과잉재현은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고착화한다(Boomgaarden & Vliegenthart, 2009; Dixon & Linz, 2000; Gilliam, Iyengar, Simon, & Wright, 1996). 이 과정에서 표현에서의 감성적 태도와 보도의 프레임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여론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Gross & D'Ambrosio, 2004;

Kühne & Schemer, 2015). 예를 들어 분노적 프레임의 뉴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가혹한 처벌에 더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부정적 감정이 강할수록 더욱 관심의 강도는 높아지며 인지적 판단에도 영향을 더 미치게 된다. 이는 외국인 범죄 보도 속 표현과 같은 감성적 태도가 그들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도 빈도나 비율과 같은 양적 과잉재현과 함께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또한, 이 연구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다량의 보도를 계량화하고 이를 통해 시기별 변화와 매체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감성 분석의 방법론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단속적으로 수행된 그간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그 함의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 범죄 보도의 매체별 차이나 장기적 경향성 및 추세를 포괄적으로 읽어낼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언론에 나타난 외국인과 이주민의 모습과 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학계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여겨진다.

2. 이론적 배경

1) 외국인 및 이주민 범죄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

그간의 연구들은 몇 가지 이론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및 이주민에 의한 범죄와 그 인식에 관해 설명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해체이론이다(신동준, 2010). 콜만(Coleman, 1988)은 사회자본이 사회구조적 측면, 즉 개인간의 사회적 연결망에서 배태되며, 그 구조 속 개인들의 행위를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사회통제이론은 이 가운데 사회자본에 의한 행위의 억제에 주목하는데, 일탈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는 항상적이지만 연결망을 통한 주변인

들과의 강한 유대감이 이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허쉬(Hirschi, 1969)는 이를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으로 구체화하면서 네 가지 사회유대의 요소를 제시했는데, 주변인들에게 가지는 애정적 결속이나 동일시를 일컫는 애착(attachment), 사회적 관습과 관례에 대한 투자와 그로 인한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관여(commitment), 통상적인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involvement),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동의와 수용인 신념(belief)이 그것이다. 이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결핍되거나 약하다면 다른 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일탈적 행동을 억제하기 어렵게 된다고 보았다. 이를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시각에 대입하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자본 형성에 열악한 조건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범죄와 같은 일탈적 행위의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으리라 볼 수 있다(김정규, 2019; 신동준, 2018).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도 마찬가지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해 지역 공동체 등 다소 거시적인 단위에서의 범죄를 설명한다. 사회화·도시화로 외부인의 유입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의 유대가 느슨해진 지역은 사회적 통제력도 약해지며, 이는 결국 일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 즉, 특정 지역에서의 외국인이나 이주민의 증가는 이질적인 규범과 가치의 유입 및 확산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가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해 온 규범과 질서 또한 무너질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및 이주민의 범죄율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국내의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내놓고 있다(김도원·변재욱, 2021). 예를 들어 이민자들이 집중된 미국의 도시지역에서 실업률 등 범죄 유관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이주민의 범죄율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Wadsworth, 2010), 또한 외국인에 의한 범죄 두려움 인식 요인을 살핀 국내의 연구는 지역 내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외국인 비율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기도 했

다(노성훈·조준택, 2014). 즉, 이 이론들은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인과 이주민에 의한 범죄의 배경을 설명하지만, 외국인 및 이주민 공동체
나 그들의 사회문화적 규범과 같은 또 다른 사회자본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신동준, 2012). 나아가 외국인과 이주민에 의한 범
죄 위험 인식에 관해서는 추론을 통한 설명만을 제시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과 이주민에 의한 범죄 위험 인식을 살피는
데 있어 접촉이론(contact theory; Allport, 1954)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론은 외(外)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의
사소통과 같은 직접적 교류를 통해 완화되며 나아가 긍정적인 인식과 불
안감 감소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나아가 확장된 접촉이론(extended
contact theory)은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내(內)집단 내 다른 구
성원의 접촉 경험이나 정보만으로도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유발 효
과가 있음을 제시한다(Cameron, Rutland, Brown, & Douch, 2006). 접촉이론과 확장된 접촉이론 모두 긍정적 인식의 요인으로 집단
구성원 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정보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
지만, 근래 수행된 연구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접촉 또한 인식에 유의
미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에 대한 청소년 인
식을 다룬 한 연구는 직접적 대면 접촉은 긍정적인 인식을 유발하지만
TV나 신문을 통한 간접 접촉은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며, 이는 미디어의
보도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Vissenberg, De
Coninck, & d'Haenens, 2021). 중국인에 대한 인식을 다룬 또 다른
연구는 중국인 친구 유무의 조절 효과 분석을 통해 친구가 없다면 매스미
디어의 부정적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교류
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Zhang, Terigele,
Han, Li, Yu, & Ruble, 2023). 즉, 외국인이나 이주민과의 직접 접촉
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교류는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긍정적 인식을 유
발하지만, 매스미디어의 보도를 통한 간접 접촉은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직접 또는 확장된 접촉 경험은 그들에 의한 범죄 위험 인식을 완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한 접촉의 경험 또는 기회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매스미디어가 주요한 간접 접촉의 경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일탈적 행위에 집중한 보도는 범죄 행위의 원인을 결핍된 사회자본으로만 환원하여 인식하게 하여(우충완·우형진, 2014), 그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외국인 및 이주민의 범죄

윌터 리프만(Lippmann, 1922, p. 25)은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사람들의 머릿속 세상, 즉 '의사환경(pseudo-environment)'은 검열과 같은 사회적 조건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두려움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 말한다. 이는 미디어가 그들만의 일방적 관점으로 세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 것으로,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 또한 재구성의 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수많은 사건과 이슈들 가운데 무엇이 집중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미디어에 의탁하면서 사람들은 보다 세상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점점 더 미디어에 의해 구성된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된다(Gamson, Croteau, Hoynes, & Sasson, 1992).

문화계발효과이론(cultivation theory)은 이러한 미디어의 현실구성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오미영·정인숙, 2005), 이 이론에 대한 검토는 두 갈래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첫 번째는 미디어가 재현한 현실과 실제 현실과의 차이, 즉 메시지의 내용과 체계가 어떠한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1~2011년 국내에서 발생한 실제 범죄 건수와 언론 보도의 빈도를 분석한 한 연구는, 범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발생 건수 대비 보도 비율이 여섯 배까지 높은 것을 발견했다(박지선·박상조, 2013). 또 다른 연구는 외국인의 범죄가 특히

더욱 높은 비율로 과잉재현되고 있음을 밝혔는데, 실제 외국인 강력범죄 피의자의 비율은 약 7.7%인데 비해 보도 비율은 16.7%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이트 보도뿐만 아니라 심층보도의 빈도 또한 더 많았다(박상조·박승관, 2016). 한편, TV뉴스에 나타난 이주민을 분석한 연구는 그들이 한국인과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정형화된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김경희, 2009). 구체적으로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관점의 보도에는 동남아 출신 이민자들이 주요한 등장인물이었으며, 그들은 경제적인 곤란 속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빈번하게 묘사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 통계와는 달리 대부분 한국 남성-외국 여성 커플이 결혼 이주자의 전형적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보도 속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그들이 단순노동자(38.8%), 범죄자(15.0%), 환자(15.0%), 그리고 시위자(8.1%)로 주로 등장하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논조의 보도 태도가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했다(임양준, 2012). 이 연구들은 미디어 속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재현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의 두 번째 논점은 매스미디어가 구성한 현실이 이용자들에게 실제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로 이른바 ‘계발효과’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거브너 등(Gerbner & Gross, 1976)은 TV 이용자를 중시청자와 경시청자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중시청자는 세상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그들은 TV 시청자들의 이러한 굴절된 인식을 ‘사악한 세상 증후군(mean world syndrome)’이라 일컬었다(Gerbner, Gross, Morgan, & Signorielli, 1980). 즉, 앞의 논점이 미디어가 구성한 세상과 현실의 차이에 관한 것이라면, 이 논점은 미디어 이용자의 왜곡된 현실 인식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따른 외국인에 의한 범죄 위험 인식을 비교한 한 연구는 사회적·개인적 범죄 위험 지각에 있어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대인적

채널을 통한 소통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다(허윤철·임영호, 2015). 즉, 매스미디어는 개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전체적이고 집합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이용자는 이를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 준거로 삼는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박지선과 박상조(2013)의 연구 또한 범죄 관련 보도를 더 많이 접하는 사람일수록 범죄율의 증가를 더 가파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박상조와 박승관(2016) 또한 미디어 이용량이 많을수록 범죄 보도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국적의 외국인이 실제보다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요약하면, 언론은 외국인 관련 사건을 위시해 범죄를 실제 발생비율보다 더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보도를 많이 접한 이용자일수록 범죄의 위협을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편향된 이미지를 출신 국적 등과 결부시켜 형성하거나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범죄는 사건·사고와 함께 신문과 TV 등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망라해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뉴스 분야인 까닭에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특히 살인 등의 강력 사건에서 피해자나 가해자의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의 특이성은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더불어 높은 뉴스 가치를 지닌다(Pritchard & Hughes, 1997). 이러한 맥락에서 과잉된 범죄 보도는 사회적 일탈에 대한 경계와 도덕성 강화라는 본래 기능(박용규, 2001)을 벗어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공포심과 모방심리 자극, 편견 형성 등의 역기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3) 범죄 보도에 나타난 태도 분석

범죄 보도 관련 연구들도 크게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논의한 문화계발효과이론을 바탕으로 범죄 보도의 빈도나 비율, 그리고 그로 인한 이용자의 인지에 관한 연구며, 두 번째는 보도 내용에 초점을 두고 범죄와 가해자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

이다. 후자의 예로, 엔트만(Entman, 1992)은 미국 시카고 지역TV 범죄 뉴스 분석을 통해 인종적 편견이 모든 보도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지는 않지만 인종 또는 이름의 언급이나 외양의 묘사 등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항상 흑인에게 더 부정적인 태도가 존재함을 발견했다. 그는 이어진 ABC, CBS 등 전국 네트워크 방송 뉴스에 대한 분석에서도 백인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통해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반면, 흑인은 부정적 고정관념과 부합하게 그려짐을 지적했다(Entman, 1994). 내·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태도 차이를 분석한 한 연구도 외국인 범죄는 더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묘사되는 반면, 내국인의 범죄는 상대적으로 덜 폭력적이고 절제된 표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허경미, 2016). 또한 전반적인 보도 내용이 범죄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석보다는 일어난 사건의 묘사나 구체적 범행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재영, 2015).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연구들은 빈도나 비율 차이에 관한 검증을 넘어 보도의 표현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다 입체적으로 범죄 보도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없지 않다. 특히 보도 내용과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한정된 기간 동안 특정 매체가 보도한 범죄 관련 기사를 수집한 뒤 그것을 연구자가 일일이 읽고 유형화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분석 기사의 양과 범위가 활용 가능한 인력과 시간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한 연구자의 주관 개입 여부와 분석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분석 결과의 타당도가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Hocking, Stacks, & McDermott, 2003). 이에 객관적인 기준에 바탕, 대량 혹은 전수의 자료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미연결망 분석을 이용, 네 가지 범죄의 955개 뉴스 헤드라인에 나타난 특성을 살핀 한 연구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혐오,

낙인 효과, 비정합, 부정적 여론, 의외성, 그리고 충격성을 강조하는 어휘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범죄 보도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중심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음을 밝혔다(이완수·최명일, 2020). 이는 어휘의 빈도 및 빈번하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표현의 추출,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통해 수직업으로는 쉽지 않은 보도의 경향성을 파악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주목받는 기법은 감성분석이다. 범죄를 비롯한 언론 보도에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핵심적인 도구는 언어적 표현으로, 문장과 단어의 선택과 배열은 무언가를 더 돋보이게 하거나, 또는 아예 배제해 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다. 범죄 보도의 표현을 분석한 한 연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기술은 매체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 행위에 대한 평가나 해석 등 주관적 입장의 보도에서는 매체마다 태도와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기도 했다(Pollak & Kubrin, 2007).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도 문장 속에서 주관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로부터 긍·부정의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범죄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보도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매체나 언론사 또는 시기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의 인권보도 준칙 전후의 범죄 보도 양태를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한 연구는 2011년과 2018년 두 해 동안 신문과 TV 등 22개 언론사가 보도한 범죄 기사 총 8만6천여 건을 비교하여 부정적 태도가 감소하였음을 밝히기도 했다(주성빈, 2019). 즉,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태도로 보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국인의 범죄와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는 데 있어서 감성분석은 또 하나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 여겨진다.

3. 연구 문제

이 연구의 주요한 초점은 언론의 외국인 범죄 보도를 감성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도 태도의 경향성 및 그 변화, 그리고 매체별 차이 등을 살피는 것이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의 양적 재현의 과잉(박상조·박승관, 2016)에 못지않게 보도에 내재한 표현과 태도의 과잉(Kühne & Schemer, 2015)은 그 영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만 주목을 받아온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20여 년간 외국인과 이주민의 수는 다섯 배가량 늘어났으며(임준, 2018), 이들이 연루된 범죄 또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e-나라지표, n.d.).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특정 사건이나 기간을 대상으로 관련 보도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세간의 이목을 끈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에 초점을 두는 경향으로 인해 보도 태도의 경향과 추세를 짚어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범죄 보도가 양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범죄 관련 통계와 더불어 분석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기된 양적 과잉 문제를 장기적 관점으로 확대해 재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같은 기간의 보도에 대한 감성분석을 실시하여 감성적 태도의 극성 및 정도성과 그 변화를 살피고, 내국인 범죄의 그것과 비교하여 감성적 차원에서의 과잉재현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언론을 통한 간접적 접촉과 미디어가 제시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체계가 외국인 과 이주민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하였는데(박지선·박상조, 2013; 우충완·우형진, 2014; Gerbner et al., 1980; Vissenberg et al., 2021), 이러한 기존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과잉재현의 현황을 짚어보고자 첫 번째 연구 문제와 하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외국인 및 이주민 강력범죄 보도는 과잉재현 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1-1. 양적인 측면(비율)에서의 과잉재현 여부와 그 추세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1-2. 표현의 측면(감성지수)에서의 과잉재현 여부와 그 추세는 어떠한가?

이러 범죄 보도에 있어 매체별 차이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이주노동자 보도와 관련하여, 신문의 경우 대체로 공중과 방송에 비해 부정적인 관점이 우세한 가운데 매체의 정파성과 소재지에 따라 그 정도가 상이함을 제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은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해 더 부정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신문들은 중립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임양준, 2012). 반면, 공중과 뉴스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중립적 태도가 공통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이 엇비슷하였다(임준, 2018). 분석 대상이 된 이주노동자 보도의 다수가 인권과 일상, 법제도 등을 주제로 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연구들이 발견한 매체 간 관점과 보도 태도의 경향성은 범죄 보도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또한, 신문에 비해 TV를 통해 더욱 빈번하게 외국인 범죄 보도에 노출되는 경향(허윤철·임영호, 2016) 등을 고려하면 매체에 따른 범죄 보도의 감성적 표현 양상과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두 번째 연구 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2. 매체별로 외국인 및 이주민 범죄 보도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1. 전국지, 지역지, 그리고 지상파TV의 범죄 보도 감성지수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2. 전국지의 정치적 경향성에 따라 감성지수에 차이가 있는가?

4.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아카이브 빅카인즈(www.kinds.or.kr)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 기간인 200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의 기사를 제공하는 18개 언론사가 대상이었으며, 이들을 세 매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신문은 8개 전국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8개 지역지(강원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광주매일신문,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부일보)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지상파 방송 두 곳(KBS, MBC)을 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 기간에 이들 매체에 보도된 '사회일반-범죄' 유목의 기사 전수를 1차로 수집하였다.

한편, '사회일반-범죄' 유목에는 강력범죄를 비롯, 금융, 마약, 절도, 사기 등 다양한 분야의 범죄 기사가 망라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지정하는 5대 강력범죄를 주요 초점으로 하여 관련 보도를 다시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그리고 폭력 가운데 한 단어라도 포함된 기사를 먼저 전부 추출하였으며, 다시 정치 분야 관련 범죄, 범죄 관련 기관의 정책 기사, 해외 범죄 보도¹⁾ 등을 필

1) 정치 분야 관련 범죄로는 국회 내 폭력 사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

터링하여 제거하였다. 이어 칼럼이나 사설 등 스트레이트가 아닌 기사와 동일 매체의 중복 기사를 마지막으로 제거하였으며,²⁾ 그 결과 1차로 수집된 전체 범죄 기사 196,288건 가운데 19,886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매체 유형별로는 전국지의 기사가 총 9,324건(46.89%)이었으며, 지역지는 총 9,290건(46.72%), 그리고 방송사가 1,272건(6.40%)이었다(구체적인 매체별 분석 대상 기사는 <표 1>, 연도별 분석 기사는 <부록> 참조).

이어 추출된 5대 강력범죄 기사 가운데 내국인이 아닌 범죄 가해자의 기사를 다시 구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빅카인즈의 키워드와 가중치 특성 추출어 가운데 ‘외국인’, ‘이주민’, ‘국적’을 포함하고 있거나, 본문 기사 가운데 외국 국명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기사를 먼저 추출하였다³⁾. 이어 추출된 기사 가운데 외국인이나 이주민이라는 표현, 또는 출신 국적이 가해자의 신상 기술에 등장하는 경우만 연구자가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표집하였으며,⁴⁾ 이를 통해 총 615건을 외국인이 저지른 5대 강력범죄 기사로 구분했다.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 기사의 표집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랜덤하게 30개의 기사를 10회 반복 추출하여 5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회 분야 기사인지, 그리고 외국인 범죄 기사의 경우 내국인이 아닌 자가 가해자로 등장하는 기사인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력 병합 사건, 정치인의 폭력 관련 고소 고발 사건 등이 있었으며, 범죄 관련 기관의 정책 브리핑이나 담화 보도, 국내 밖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등은 관련 키워드 등을 이용하여 모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기호 등을 제거하는 텍스트 전처리 후 기사 앞머리 20자가 동일한 경우 모두 중복 기사로 판단, 일시가 가장 앞선 기사 이외의 나머지는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2022)의 외국인 국적별 체류자 상위 23위의 국가명 전부를 검색·추출하였다.

4)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경우 국적이 별도로 명기된 경우는 외국인 범죄 기사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투입된 5대 강력범죄의 보도를 살펴보면, 먼저 외국인이 가해자로 등장하는 범죄 기사는 전체 19,886건 가운데 615건으로 3.09%의 비율로 나타났다. 매체 유형별로는 전국지는 9,324건 가운데 337건(3.61%), 지역지는 9,290건 가운데 217건(2.34%)로 전국지의 보도 비율이 높았으며, 방송사는 1,272건 가운데 61건인 4.80%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매체별로는 전국지 가운데서는 동아일보의 비율(4.87%)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지에서는 중부일보(3.37%), 그리고 방송사에서는 MBC(5.6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 매체별 분석 범죄 기사 수와 내·외국인 보도 건수와 비율

매체 유형	매체명	전체 범죄 기사 수	5대 강력범죄 기사 수(단위: 건)			5대 강력범죄 기사 비율(단위: %)	
			전체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국지	경향신문	18,667	1,448	1,399	49	96.62%	3.38%
	국민일보	16,987	1,255	1,210	45	96.41%	3.59%
	동아일보	9,130	678	645	33	95.13%	4.87%
	문화일보	10,839	1,159	1,109	50	95.69%	4.31%
	서울신문	17,885	1,251	1,209	42	96.64%	3.36%
	중앙일보	12,816	1,036	1,012	24	97.68%	2.32%
	한겨레	15,458	1,365	1,315	50	96.34%	3.66%
	한국일보	13,898	1,132	1,088	44	96.11%	3.89%
	소계	115,680	9,324	8,987	337	96.39%	3.61%
지역지	강원도민일보	7,589	1,397	1,381	16	98.85%	1.15%
	경남도민일보	7,587	938	910	28	97.01%	2.99%
	광주매일신문	4,762	703	695	8	98.86%	1.14%
	매일신문	7,517	896	873	23	97.43%	2.57%
	부산일보	12,210	1,601	1,548	53	96.69%	3.31%
	전북일보	5,841	802	793	9	98.88%	1.12%
	제민일보	5,416	1,173	1,153	20	98.29%	1.71%
	중부일보	12,346	1,780	1,720	60	96.63%	3.37%
	소계	63,268	9,290	9,073	217	97.66%	2.34%

지상파 방송	KBS	5,861	428	415	13	96.96%	3.04%
	MBC	11,479	844	796	48	94.31%	5.69%
	소계	17,340	1,272	1,211	61	95.20%	4.80%
총계		196,288	19,886	19,271	615	96.91%	3.09%

2) 분석 방법

이어 수집된 기사에 대해 감성분석을 실시하였는데⁵⁾, 먼저 분석의 수준은 ‘문장’ 단위로 설정하였다. 한국어 감성분석은 대체로 ‘문서’ 수준과 ‘문장’ 수준으로 수행되는데, ‘문서’ 수준의 경우 하나의 글 속에 담긴 긍정과 부정어의 빈도를 산출하여 감성의 경향성을 판별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결과가 명확하지만(Zhang & Liu, 2016), 스트레이트 기사가 일반적으로 의견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작성되며(임영호, 2013), 따라서 긍정어와 부정어의 빈도만으로는 기사의 감성을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문장’으로 분석 수준을 설정하였다. 문장 수준은 한 문장 내의 단어 각각에 대해 긍정 및 부정, 그리고 중립으로 판별하고 일정한 정도의 수치를 부여한 뒤 문장 단위에서 수치를 평균화하고 이어 문서 단위로 다시 수치를 종합하는 것으로 중립적 표현을 수치 산출에 포함하므로 좀 더 상세한 판단을 가능케 한다(남길임·조은경, 2017). 즉, 중립에 가까운 단어가 많이 사용될수록 긍부정 표현의 수치는 0에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문장 수준 감성분석의 감성지수 산출 공식은 기존 연구(최창식·임영호, 2021)에 근거,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기사의 감성지수 = \sum 기사 내 각 단어의 감성 점수/기사 내 총 단어 수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www.kinds.or.kr)는 기사 전문이 아닌 앞머리 200자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였다. 이는 범죄 보도와 같은 스트레이트 기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리드와 서두가 포함되어 있어 기사의 전반적 논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임영호, 2013), 더불어 기사의 분량과 무관하게 분석에 투입될 표현의 양을 균일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사의 감성지수 산출을 위한 기사 내 단어의 감성 점수 부여에는 사전 기반 판별법(lexicon-based approach)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한 감성사전은 군산대학교 Data Intelligence Lab에서 제작한 ‘KNU 한국어 감성사전’(박상민·엄창민·온병원·정동원, 2019)으로, 해당 사전은 14,843개 어휘와 표현 각각에 대해 -2에서 2의 범위의 긍정과 부정 정도성 값을 매기고 있다. 즉, 긍정의 감성 어휘 또는 표현은 그 긍정의 정도에 따라 2 또는 1의 감성 값을 가지게 되며, 부정의 어휘와 표현은 마찬가지로 -2 또는 -1의 값을 가지게 된다. 중립어나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단어는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앞서의 감성지수 산출 공식과 결부하여 요약하면, 한 기사 내 사용된 어휘 각각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정도를 판별하여 2에서 -2에 이르는 값을 부여한 뒤 총 단어의 수로 나눈 것이 해당 기사의 감성지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각 기사의 감성지수를 매체별로, 또는 시기별 등으로 종합하여 감성지수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감성 분석에 사용된 기본 도구는 R(ver. 4.2.1)이며, 데이터 및 문자열 전처리를 위한 R패키지로는 dplyr(1.0.9), stringr(1.4.0), tidyverse(1.3.1), 그리고 tm(0.7-8)이 사용되었다. 또한 자연어 처리와 감성 분석을 위한 R패키지로는 SentimentAnalysis(1.3-4)와 KoNLP(0.80.2), Sejong(0.01)가 사용되었다. 산출된 감성지수의 통계적 처리에는 SPSS(ver. 22)가 함께 활용되었다.

5. 분석 결과

1) 외국인 범죄 보도의 과잉재현 검증

본 연구의 첫 번째 문제(RQ 1)는 외국인 및 이주민 범죄 보도의 과잉재현 여부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보도의 과잉 재현을 보도 건수나 비율과 같은 양적 측면과 보도의 표현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양적 과잉 재현의 여부와 추세

먼저 첫 번째 연구 문제의 하부 문제(RQ 1-1)는 외국인 및 이주민 범죄 보도의 양적 과잉재현과 그 추세에 관한 것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범죄 건수 및 비율, 그리고 분석 대상 기사에 나타난 보도 건수와 비율 비교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통계청(2022)에 따르면, 2000~2020년 동안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총 3,284,583건으로 이 가운데 내국인에 의한 범죄가 3,222,740건,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총 61,843건이었다. 이 기간에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전체 강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0%~2.60%였으며, 전체 기간의 비율은 1.88%였다(〈표 2〉 참조). 즉, 100건의 강력범죄 가운데 두 건 미만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같은 시기 분석 대상 18개 매체에 보도된 5대 강력범죄 관련 기사를 살펴본 결과, 내국인의 범죄 관련 보도는 총 19,271건이었으며 외국인에 의한 범죄 보도는 615건으로 외국인 범죄 보도 비율은 전체에서 약 3.09%의 비율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 1.09%로 보도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2020년에는 5.58%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3〉 참조). 즉, 외국인 범죄는 100건의 보도 가운데 세 건 남짓한 비율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는 실제 강력범죄의 2% 미만이 외국인에 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두 비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국인 범죄 보도 비율(3.09%)은 실제 범죄 발생 비율(1.88%)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z = -12.502$, $p < .001$.

표 2. 연도별 내·외국인 범죄 건수(괄호는 외국인의 범죄 비율,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내국인	36,097	35,159	35,391	39,235	35,320	34,840	90,829	125,671	169,694	178,572	165,870
외국인	109	237	236	303	287	269	573	892	1,567	1,905	1,705
계	36,206 (0.30)	35,396 (0.67)	35,627 (0.66)	39,538 (0.77)	35,607 (0.81)	35,109 (0.77)	91,402 (0.63)	126,563 (0.70)	171,261 (0.91)	180,477 (1.06)	167,575 (1.02)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내국인	178,114	190,275	191,182	227,489	246,134	263,238	259,017	251,541	248,155	220,917	3,222,740
외국인	3,202	3,243	3,855	5,103	6,345	6,796	6,565	6,469	6,626	5,556	61,843
계	181,316 (1.77)	193,518 (1.68)	195,037 (1.98)	232,592 (2.19)	252,479 (2.51)	270,034 (2.52)	265,582 (2.47)	258,010 (2.51)	254,781 (2.60)	226,473 (2.45)	3,284,583 (1.88)

표 3. 연도별 외국인 내 외국인 범죄 보도 건수(괄호는 외국인 범죄 보도 비율,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내국인	612	844	715	845	914	872	628	965	760	845	698
외국인	17	23	27	19	20	20	20	21	36	26	27
계	629 (2.70)	867 (2.65)	742 (3.64)	864 (2.20)	934 (2.14)	892 (2.24)	648 (3.09)	986 (2.13)	796 (4.52)	871 (2.99)	725 (3.72)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내국인	936	1,546	982	1,026	1,344	1,042	817	991	1,009	880	19,271
외국인	40	49	28	26	56	29	9	36	34	52	615
계	976 (4.10)	1,595 (3.07)	1,010 (2.77)	1,052 (2.47)	1,400 (4.00)	1,071 (2.71)	826 (1.09)	1,027 (3.51)	1,043 (3.26)	932 (5.58)	19,886 (3.09)

연도별 강력범죄 발생 건수와 강력범죄 보도 건수의 경향성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런즈 분석(Wald - Wolfowitz runs test)을 이용, 비모수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먼저 내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그리고 전체 강력범죄는 2000년 이래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z = -3.131$, $p = .002$. 반면 범죄 보도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 추세가 발견되지 않았다(내국인 범죄 보도 및 전체 범죄 보도: $z = -1.336$, $p > .05$; 외국인 범죄 보도: $z = -0.438$, $p > .05$).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강력범죄의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의 보도량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강력범죄 건수와 기사량의 추세 분석

	내국인 범죄 건수	외국인 범죄 건수	전체 범죄 건수	범죄 비율	내국인 범죄 보도	외국인 범죄 보도	전체 보도 건수	범죄 보도 비율
n	21	21	21	21	21	21	21	21
runs	4	4	4	4	8	10	8	10
z	-3.131	-3.131	-3.131	-3.131	-1.336	-0.438	-1.336	-0.438
p	.002	.002	.002	.002	.182	.661	.182	.661

(2) 표현 측면에서의 과잉 재현 여부와 추세

앞서의 분석을 통해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보도가 양적인 측면에서 과잉재현 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감성분석을 이용하여 표현의 측면에서 내·외국인의 범죄 보도를 비교분석 하였다(RQ 1-2). 먼저 강력범죄 보도의 감성지수를 산출하였는데, 내국인 보도의 감성지수 평균은 -0.017570 ($SD = 0.030639$)이였으며 외국인 보도의 감성지수 평균은 -0.014501 ($SD = 0.030783$)이였다(〈표 5〉 참조). 즉, 내국인 범죄 보도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t(19884) = -2.524$, $p = .012$. 다시 말해 언론은 내국인의 강력범죄를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며 이는 외국인의 범죄를 더욱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측면에서의 과잉재현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표 5. 내국인과 외국인 강력범죄 보도의 감성지수

		내국인 강력범죄 보도	외국인 강력범죄 보도	전체 강력범죄 보도
기사 건수		19,271	615	19,886
감성지수	<i>m</i>	-0.017668	-0.014501	-0.017570
	<i>SD</i>	0.030639	0.030783	0.030648

이러한 발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추이를 분석 하였다(〈표 6〉 참조). 연도별로 등락은 있지만, 전체 강력범죄 보도의 감성지수는 2000년 -0.01973 에서 2020년 -0.01305 로 부정적 표현이 완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강력범죄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였다.

표 6. 연도별 외국인 내·외국인 강력범죄 보도 감성지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내국인	-0.01989	-0.01733	-0.01847	-0.0195	-0.02228	-0.02062	-0.02016	-0.0192	-0.02336	-0.01904	-0.01404
외국인	-0.01377	-0.00913	-0.03019	-0.01105	-0.015	-0.01475	-0.0049	-0.02843	-0.02239	-0.00854	-0.01659
계	-0.01973	-0.01711	-0.0189	-0.01932	-0.02212	-0.02049	-0.01969	-0.0194	-0.02331	-0.01873	-0.01414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내국인	-0.01647	-0.01763	-0.02095	-0.01766	-0.01514	-0.01453	-0.01652	-0.01518	-0.01339	-0.01357	-0.01767
외국인	-0.01695	-0.02443	-0.01607	-0.01069	-0.01107	-0.01772	-0.013	-0.00583	-0.01171	-0.00425	-0.01450
계	-0.01649	-0.01784	-0.02082	-0.01748	-0.01498	-0.01461	-0.01648	-0.01485	-0.01333	-0.01305	-0.01757

발견된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런즈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범죄와 내국인 범죄 보도의 감성지수는 부정적 표현이 완화되는 추세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234$, $p = .026$. 그러나 외국인 범죄 보도의 감성지수는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 표현이 완화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 $z = 0.000$, $p > .05$. 즉, 내국인 강력범죄 관련 보도는 2000년 이후 차츰 부정적 표현이 완화되면서 중립적 표현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외국인의 관련 보도는 부정적 표현의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표 7〉 참조).

종합하면, 언론 보도는 외국인의 강력범죄에 비해 내국인의 강력범죄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내국인 범죄 보도의 경우 차츰 그 부정 표현의 수위가 완화되고 있었지만, 외국인 관련 보도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없었다.

표 7. 강력범죄 감성지수의 추세 분석

	내국인 범죄 보도 감성지수	외국인 범죄 보도 감성지수	전체 범죄 보도 감성지수
<i>n</i>	21	21	21
runs	6	11	6
<i>z</i>	-2.234	0.000	-2.234
<i>p</i>	.026	> .05	.026

2) 매체별 외국인 범죄 보도 양상

(1) 전국지, 지역지, 지상과 방송 간 차이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외국인 및 이주민의 강력범죄 보도에 나타난 감성지수가 매체별로 어떠한지, 그리고 그 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RQ 2).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부 연구 문제는 전국지, 지역지, 그리고 지상과 방송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RQ 2-1), 이를

위해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수집한 매체별 감성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내국인 강력범죄 보도에 나타난 감성지수를 매체 유형(전국지, 지역지, 지상과 방송)별로 비교한 결과,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F(2, 19268) = 118.317, p < .001$. 지역지의 감성지수가 가장 낮았으며($m = -0.021216, SD = 0.032163$), 이어 지상과 방송($m = -0.016164, SD = 0.029890$), 전국지($m = -0.014290, SD = 0.028706$) 순이었다. 즉, 지역지는 강력범죄 보도에 있어서 세 매체 유형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국지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표 8〉 참조). 이어 매체 간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후분석(Scheffe)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지와 지역지($p < .001$), 지상과 방송과 지역지($p < .001$)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지와 지상과 방송($p > .05$)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지역지가 다른 두 매체 유형에 비해 내국인의 강력범죄를 더욱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 매체 유형 간 내국인 강력범죄 감성지수 비교

	<i>m</i>	<i>SD</i>	<i>df</i>	<i>F</i>
전국지	-0.014290	0.028706		
지역지	-0.021216	0.032163	2, 19268	118.317***
지상과 방송	-0.016164	0.029890		

*** $p < .001$

이어 외국인 강력범죄 보도의 감성지수를 매체 유형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전체 범주 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F(2, 612) = 6.272, p < .01$. 외국인 강력범죄를 세 매체 유형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지역지($m = -0.020396, SD = 0.035089$)였으며, 이어 지상과 방송($m = -0.011951, SD = 0.027183$)와 전국지($m = -0.011166, SD = 0.027810$) 순이었다(〈표 9〉 참조). 사후분석

(Scheffe) 결과, 지역지와 전국지($p < .01$)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지역지와 지상파 방송($p > .05$), 그리고 전국지와 지상파 방송($p > .05$) 간에는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9. 매체 유형 간 외국인 강력범죄 감성지수 비교

	<i>m</i>	<i>SD</i>	<i>df</i>	<i>F</i>
전국지	-0.011166	0.027810		
지역지	-0.020396	0.035089	2, 612	6.272**
지상파 방송	-0.011951	0.027183		

** $p < .01$

마지막으로 각 매체 유형별로 내국인 강력범죄와 외국인 강력범죄 보도 간의 감성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국지의 내국인($m = -0.014290$, $SD = 0.028706$)과 외국인($m = -0.011166$, $SD = 0.028706$) 간 강력범죄 보도 감성지수의 차이는 유의미했다. $t(9322) = -1.963$, $p < .05$. 즉, 내국인의 강력범죄를 외국인 강력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지와 지상파 방송의 경우, 전국지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강력범죄 보도 감성지수가 외국인에 비해 낮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표 10〉 참조). 요약하면, 매체들은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의 강력범죄를 조금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전국지에서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 10. 매체 유형별 내국인과 외국인 강력범죄의 감성지수 차이 비교

	전국지			지역지			지상파 방송		
	<i>m(SD)</i>	<i>df</i>	<i>t</i>	<i>m(SD)</i>	<i>df</i>	<i>t</i>	<i>m(SD)</i>	<i>df</i>	<i>t</i>
내국인	-0.014290 (0.028706)	9322	-1.963*	-0.021216 (0.032163)	9288	-0.370	-0.016164 (0.029890)	1270	-1.078
외국인	-0.011166 (0.028706)			-0.020396 (0.035087)			-0.011951 (0.027183)		

* $p < .05$

(2) 전국지의 정치적 경향성에 따른 차이

이러 매체의 정치적 경향성에 따라 보도 표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전국지 가운데 보수 성향 신문과 진보 성향 신문의 외국인 범죄 보도 태도를 감성지수를 통해 비교분석하였다(RQ 2-2). 정치적 경향성 구분은 감성분석을 통해 신문들의 정파성을 살핀 기존 연구(최창식·임영호, 2021)를 바탕으로 동아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를 보수 성향 신문으로,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를 진보 성향 신문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보수 성향 신문의 외국인 범죄 보도 감성지수($n = 133$, $m = -0.010586$, $SD = 0.291608$)는 진보 성향 신문의 감성지수($n = 135$, $m = -0.011385$, $SD = 0.0278096$)에 비해 약간 덜 부정적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266) = 0.229$, $p > .05$. 즉, 전국지의 정치적인 경향성은 외국인의 범죄 보도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논의 및 결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세가 잠시 멈춰서기도 했지만 2021년 말 기준 다시 200만 명대를 회복하며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상서, 2022). 다인종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주목받는 것은 미디어의 역할이다. 다른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의 형성에 있어서 간접 경험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미디어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환경 변화를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거나, 또는 배타적인 태도를 형성하게끔 하는 하나의 구조로 기능한다(김승환, 2013; 김은미 외, 2015). 즉, 미디어가 묘사하는 외국인이나 이주민의 이미지는 그들에 대

한 시민의 인식이나 태도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가 주목한 것은 외국인이 관련된 언론의 강력범죄 보도다. 기존 연구들은 외국인에 의한 실제 범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관련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하다고 밝힌 바 있다(박상조·박승관, 2016). 만약 이러한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문제는 단순히 실제보다 더 빈번하게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비현실적으로 자극하고 나아가 타인종과 문화에 대한 수용성마저 떨어뜨려 다문화 사회로의 원만한 이행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충완·우형진, 2014; 허윤철·임영호, 2015, 2016; Boomgaarden & Vliegenthart, 2009; Dixon & Linz, 2000; Gilliam et al.,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여 년간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련 강력범죄의 보도를 비교분석하여 기존 연구가 제기한 이른바 ‘과잉재현’ 현상(박상조·박승관, 2016)이 실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년에서 2020년까지 18개 매체(8개 전국지, 8개 지역지, 2개 방송사)가 보도한 내국인 및 외국인의 5대 강력범죄 관련 보도 19,886건을 통해 과잉재현이 양적 측면과 표현 측면에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매체별로 이러한 보도의 양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 문제(RQ 1)는 외국인 및 이주민이 가해자로 등장하는 보도가 과잉재현 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그 첫 번째 하부 문제(RQ 1-1)는 양적인 측면에서의 과잉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분석 결과, 2000년~2020년 기간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8%인데 비해 외국인 강력범죄 보도 비율은 3.09%였으며, 이러한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실제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 비율보다 언론 매체가 이를 다루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과잉재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와 상응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박상조와 박

승관(2016)은 2011년과 2012년 사이 발생한 살인, 성폭행, 성추행, 절도, 사기 등의 범죄 건수와 보도, 그리고 통계 자료를 통해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사화됨을 밝혔다. 이어 더해 본 연구는 이들이 발견한 양적 측면에서의 과잉재현이 강력범죄 관련 보도에서도, 그리고 더 장기간의 관찰에서도 나타남을 실증한 것이다. 이러한 양적 과잉재현에 대해 박상조와 박승관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뉴스 가치의 특수성이 이러한 경향의 배경이라 말한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가진 이방인이 포함된 범죄는 그 자체로 상대적 주목도가 높으며, 이것이 더 많은 보도로 이어짐을 지적한 바 있다 (Pritchard & Hughes, 1997). 양적 과잉재현의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빈번한 범죄자의 국적에 내재한 뉴스 가치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적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이러한 경향이 보도의 빈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적에 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사건은 외국인과 그 국적을 더 부각하는 보도 경향이 있다는 발견도 이를 뒷받침한다(Yamamoto, 2012). 이러한 설명은 양적 과잉재현에 관해 타당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과정 또한 양적 과잉재현의 주요한 한 배경이라 여겨진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과의 접촉은 더욱 빈번해졌으며, 좁혀진 사회적 거리감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불확실성 감소 이론(Uncertainty reduction theory; Berger & Calabrese, 1975)은 익숙하지 않은 문화 간의 접촉에서 사람들은 정보의 입수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감소를 위한 정보 추구 과정에서 미디어는 신뢰할 만한, 그리고 그 편재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외국인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편리한 정보원으로 기능한다. 즉, 다문화의 확산과 함께

언론 또한 이용자들의 관련 정보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할 것이며, 범죄 관련 보도의 빈도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한 외국인 범죄에 관한 실제 이상의 과도한 간접적 노출은 앞서 접촉이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범죄의 배경을 개인 또는 집단적 차원으로의 환원 가능성을 높이고 이어 그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우충완·우형진, 2014).

첫 번째 연구 문제의 두 번째 하부 문제(RQ 1-2)는 이러한 과잉재현이 기사 속 표현의 측면에서도 나타나는지에 관한 것으로, 외국인의 강력범죄를 언론이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기사 전수를 대상으로 감성분석을 실시, 내국인과 외국인 강력범죄 보도의 긍·부정 표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의 강력범죄에 관한 보도에 나타난 감성지수(-0.014501)는 내국인의 관련 보도 감성지수(-0.017668)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외국인 범죄 보도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국인의 강력범죄가 더 부정적으로 기술된 것으로, 이는 표현의 측면에서는 외국인 범죄의 과잉재현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보도에 있어서 실제 범죄보다 더 높은 비율로 기사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나 표현의 측면에서 내국인의 범죄보다 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며, 이는 외국인의 범죄를 더 위협적으로 묘사하고 불안감을 가중하는 표현 차원에서의 과잉재현과는 거리가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론의 범죄 보도 관행이다. 언론사의 범죄 보도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발표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노성호·이기웅, 1996; 양재규, 2017), 취재진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현장 취재는 일부의 사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양영유·이완수, 2020). 이러한 까닭에 일정한 패턴에 따라 유사한 내용과 표현의 범죄 기사가 작성되기에 외국인의 범죄를 차별적으로 표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범죄와 피해의 상황 및 정도, 그리고 사회적 과장에 따라 그 표현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범죄가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이 덜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시적인 분석 결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2000년~2020년 기간에 내국인과 외국인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범죄 보도 건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뉴스를 소비할 수 있는 매체와 플랫폼이 증가하고 이용자의 관심사도 다변화하면서 뉴스 소재가 다양화된 데 한 원인이 있으며(닐슨 코리아클릭, 2016), 또한 범죄 등 연성뉴스 이용이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신문과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범죄 보도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윤여광·조인희, 2017; 윤호영·길우영·이종혁, 2017). 한편 내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인 표현은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외국인의 강력범죄 관련 보도의 표현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2011년 인권보도준칙의 제정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자협회가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 준칙은 강력 사건 등을 보도할 때 추가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준칙이 실제 어느 정도 보도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고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한 감성분석 연구에 따르면 준칙 제정 이후 범죄 보도의 부정적 감성 표현이 약 30% 감소하였다고 한다(주성빈, 2019). 즉, 내국인에 대한 강력범죄 보도의 부정표현 감소는 이러한 언론의 인권보호 차원의 자정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표현에서 부정 표현이 완화되지 않은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매체 유형에 따라 강력범죄 보도의 감성지수가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RQ 2), 이를 위해 먼저 분석 대상 매체를 전국지와 지역지, 그리고 방송사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RQ 2-1).

그 결과, 지역지(-0.020396)는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를 세 매체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방송사(-0.011951)와 전국지(-0.011166)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덧붙여 내국인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외국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지역지(-0.021216), 방송사(-0.016164), 그리고 전국지(-0.014290) 순으로 부정적 감성 표현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지가 매체 유형들 가운데 가장 부정적으로 강력범죄를 다루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내국인과 외국인 범죄 보도에 있어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범죄 보도의 부정 표현 정도성은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매체 특성보다는 전국매체와 지역매체와 같은 지리적 환경 및 커버리지에 따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는 매체별 범죄 보도에 관한 기자와 모니터 단체의 인터뷰를 통해 신문이나 방송의 범죄 보도 모두 선정성과 자극성, 폭력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신문은 선정적인 제목과 범죄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방송은 언어보다는 시선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영상을 내세우는 경우가 잦음을 지적한 바 있다(양영유·이완수, 2020).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국지와 방송사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감성지수의 유사성은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지역지의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범죄 보도 경향은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먼저 지역지는 전국지와는 달리 뉴스 커버리지가 상대적으로 좁다. 중앙정부 및 정치와 전국적 이슈를 다루는 전국지와는 달리 지역의 이슈를 주로 다루는 지역지로서는 사건사고가 주요한 뉴스원 가운데 하나며, 전국 매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또한 지역민으로서 지역에서 일어난, 혹은 지역 매체가 다루고 있는 범죄 뉴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며, 그러한 보도를 통해 위협의 인지라는 효능감을 느끼게 되리라 추론할 수 있다(이아·이건호, 2022). 한편, 범죄 보도가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현상 또한 하나의 배경으로 풀

이된다. 보도자료는 수사기관의 실적을 공표하는 하나의 주요한 경로며, 따라서 범죄를 보다 자극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양재규, 2017). 언론사의 인적 규모와 재정적 능력이 열악할수록 보도자료 이용이 증가한다는 연구(남효윤, 2005)와 이를 결부시켜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지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전제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며, 따라서 보도 내용에 있어서 더 자극적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더불어 이전 연구에서 제기한 신문의 정파성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보도 태도 차이가 외국인 범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RQ 2-2), 보수와 진보 성향 신문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이주민과 달리 범죄자의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더불어 외국인이라는 신분이 비난이나 처벌의 의사를 더 증폭시키는 경향(Albrecht & Nadler, 2022)으로 인해 정치적 경향성을 떠나 유사한 보도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의 과잉재현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존재함을 발견했으나, 그것을 더욱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등 표현 측면에서의 과잉재현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범죄라는 뉴스 가치(Pritchard & Hughes, 1997)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양적 과잉재현은 언론에 있어서는 쉽게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표현에서의 과잉재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발견이자 또한 이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양적 과잉재현에 의한 것이라고만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박상조·박승관, 2016; 박지선·박상조, 2013). 따라서 보도가 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개인 및 사회 수준의 변수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매체 유형별로는 지역지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 태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역지의 외국인 범죄 보도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범죄 보도의 양태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내·외국인의 여부, 매체의 유형을 포괄하여 제언하자면, 양적 과잉재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쟁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행태(박지선·박상조, 2013)는 대중의 이목을 끄는 데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막연한 사회적 두려움의 배양으로 귀결될 수 있다. 더구나 외국인 범죄의 과잉 재현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고 집단 간의 이해와 배려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ntman, 1994; Yamamoto, 2012). 따라서 보도자료에 의존하거나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피해에만 초점을 두는 반복적 보도를 지양하면서 사건의 구조적 배경이나 사회적 예방에 초점을 둔 심층적인 보도를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도 없지 않다. 먼저 주요한 5대 강력범죄만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외의 범죄와 그 보도 경향에 대해서까지 분석했다라면 더 포괄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불어 범죄의 유형이나 심각성을 고려한 보도 태도 분석도 또 다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여 년간의 범죄 보도의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도 양태를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라 생각되지만, 몇몇 심각한 수준의 강력범죄는 사회적 파장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심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초점을 둔 연구 또한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연구는 보도의 경향에 분석의 초점을 둔 까닭에 개인이 느끼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두려움에 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한 감성 사진은 1만 4천여 표현에 대한 감성지수를 수록하고 있어 일상적인 표현에 나타난 감성적 태도 측정에는 높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언론 보도, 특히 본 연구가 다룬 범죄 보도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표현들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죄를 비롯한 언론 보도

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을 포괄하는 감성 사전이 개발된다면 더욱 타당성 높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2009).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 뉴스초점 이주민과 주변인물(한국인·이주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권 3호, 7-46.
- 김도원·변재욱 (2021). 외국인 유입과 범죄 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의 13개 광역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69집 4호, 185-232.
- 김선미 (2011).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 50권 2호, 173-190.
- 김승환 (2013). 이주민에 대한 언론 보도가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주관성 연구>, 26호, 39-55.
- 김유신·김남규·정승렬 (2012). 뉴스와 주가: 빅데이터 감성분석을 통한 지능형 투자 의사결정모형. <지능정보연구>, 18권 2호, 143-156.
- 김은미·조운용·임영호·송보영 (2015). 다문화 범죄 보도에서 기사 구성 방식과 출신국에 대한 태도가 댓글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권 6호, 107-136.
- 김정규 (2019). 외국인 이주자와 범죄: 잠재적 범죄자 인식과 다문화 수용도. <한국범죄학>, 13권 1호, 69-92.
- 김찬중 (2019).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뉴스 보도가 혐오에 미치는 효과 연구: 위협 보도와 온정주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권 5호, 31-60.
- 남길임·조은경 (2017). <한국어 텍스트 감성 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효윤 (2005). 언론의 보도자료 이용에 관한 연구: 지역신문의 재무상태, 규모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233-256.
- 노성호·이기웅 (1996). <한국언론의 범죄보도 관행> (연구총서 96-09).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노성훈·조준택 (2014). 지역사회의 범죄, 외국인,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준 분석. <형사정책연구>, 100호, 445-478.

- 닐슨 코리아클릭 (2016. 10. 19). 뉴스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뉴스 소비 행태 변화 [전자매체본]. <월간 토픽>, 261-2호. URL: http://www.koreanclick.com/insights/newsletter_view.html?code=topic&id=417&page=1
- 박상민·엄창민·온병원·정동원 (2019). 온라인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AR-KNU 감성사전 기반의 대학 평판도 평가.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17권 3호, 11-21.
- 박상조·박승관 (2016).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외국인 우범자 인식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0권 3호, 145-177.
- 박용규 (2001).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5권 2호, 156-185.
- 박종민·정영주·주호준·김현우 (2020). 대한민국은 지난 20년간 ‘북한’과 ‘통일’을 어떻게 보았는가? 언론 보도 빅데이터 분석 및 국민 인식 중단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6호, 161-201.
- 박지선·박상조 (2013).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8권 1호, 297-316.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2). 2022년 1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전자매체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12월호. URL: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3). 2023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전자매체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3년 3월호. URL: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
- 신동준 (2010). 사회자본과 범죄학이론. <한국사회학>, 44집 4호, 95-125.
- 신동준 (2012).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2호, 183-217.
- 신동준 (2018). 범죄학 이론의 이해와 분석. <한국범죄학>, 12권 2호, 73-97.
- 신예원·마동훈 (2019).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미디어 경제와 문화>, 17권

2호, 31-80.

양영유·이완수 (2020). 한국 언론의 범죄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건기자와 범죄뉴스 모니터 집단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언론정보학보>, 104호, 44-83.

양재규 (2017). 범죄수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일명 '수사기관 처널리즘')의 법적 문제점. <미디어와 인격권>, 3권 1호, 179-210.

양정혜 (2007).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7호, 47-77.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오미영·정인숙 (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우충완·우형진 (2014). 이주노동자 관련 범죄보도 노출과 접촉 경험이 내국인의 제노포비아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7호, 185-227.

윤여광·조인희 (2017). 미디어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뉴스가치 측정 요소의 변화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권 8호, 57-68.

윤호영·길우영·이종혁 (2017). 다중미디어 시대의 뉴스 미디어 레퍼토리와 주제 관심도 관계 분석: 뉴스 주제 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1권 1호, 107-148.

이상서 (2022. 6. 23). 국내 체류 외국인, 15개월 만에 200만명대 회복했다.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3073800371>

이아·이건호 (2022). 범죄 지역과 범죄 유형에 따른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 연구: 범죄 보도 댓글에 나타난 수용자의 지각된 위험과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16호, 106-135.

이완수·최명일 (2020). 범죄뉴스 헤드라인 언어와 의미구성: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보도된 범죄 유형별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한국언론정보학보>, 101호, 367-398.

이인희·황경아 (2013). 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다문화사회연구>, 6권 2호, 83-108.

- 이재영 (2015). 범죄보도에 관한 양적 내용분석: 살인, 강도, 강간범죄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0호, 207-237.
- 이현서·송민 (2018). 트럼프 취임 관련 국내 언론에서 나타난 감성과 거시 경제 지수 간 영향 관계: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하여. <언론과학연구>, 18권 3호, 129-169.
- 이혜진·조운오 (2022). 이민자 특성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주요 모델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6권 1호, 79-99.
- 임양준 (2012). 한국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문의 보도 경향과 인식연구: 조선일보, 한겨레, 경인일보, 부산일보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2권 4호, 419-456.
- 임영호 (2013). <신문원론> (제3판). 서울: 한나래.
- 임준 (2018). 한국거주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 경향 연구: MBC, KBS, SBS저녁뉴스와 YTN 뉴스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7권 1호, 321-354.
- 주성빈 (2019). 언론의 범죄 보도 행태에 관한 감성분석: 인권보도준칙 제정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5권 2호, 127-140.
- 채영길 (2010).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한겨레신문과 조선일보에 나타난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의 시계열적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4권 2호, 205-241.
- 최창식·임영호 (2021). 대통령 관련 보도의 감성 분석과 정파성의 지형: 신문별 감성지수의 차이, 일관성, 대통령 지지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권 1호, 35-70.
- 통계청 (2022). 범죄자 국적. UR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TX_13501_A078&vw_c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2020 언론수용자 조사> (조사분석 2020).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허경미 (2016). 미디어의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태도 연구. <한국경찰연구>, 15권 3호, 351-374.

- 허윤철·임영호 (2015).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6권 3호, 267-302.
- 허윤철·임영호 (2016). 범죄 뉴스 노출과 다문화수용성: 위험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호, 92-123.
- BBC News 코리아 (2020. 10. 16). 초고령사회: 통계로 보는 20년 뒤 한국 ... 3명 중 1명은 노인. URL: <https://www.bbc.com/korean/news-54506949>
- e-나라지표 (*n.d.*). 최종별 외국인 범죄현황. URL: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18
- Albrecht, K., & Nadler, J. (2022). Assigning punishment: Reader responses to crime news. *Frontiers in Psychology*, 13, 784428.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Berger, C. R., & Calabrese, R. J. (1975). Some explorations in initial interaction and beyond: Toward a developmental theory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2), 99-112.
- Boomgaarden, H. G., & Vliegenthart, R. (2009). How news content influences anti-immigration attitudes: Germany, 1993-2005.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8, 516-542.
- Cameron, L., Rutland, A., Brown, R., & Douch, R. (2006). Changing children's intergroup attitudes toward refugees: Testing different models of extended contact. *Child Development*, 77, 1208-1219.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Dixon, T. L., & Linz, D. (2000). Overrepresentation and

- underrepresentation of African Americans and Latinos as lawbreakers on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 131-154.
- Entman, R. M. (1992). Blacks in the news: Television, modern racism and cultural change. *Journalism Quarterly*, 69(2), 341-361.
- Entman, R. M. (1994). Representation and reality in the portrayal of blacks on network television news. *Journalism Quarterly*, 71(3), 509-520.
- Gamson, W. A., Croteau, D., Hoynes, W., & Sasson, T. (1992). Media image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373-393.
- Gerbner, G., & Gross, L. (1976). Living with television: The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26(2), 172-194.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number 11. *Journal of Communication*, 30(3), 10-29.
- Gilliam, F. D., Jr., Iyengar, S., Simon, A., & Wright, O. (1996). Crime in black and white: The violent, scary world of local news. *Th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3), 6-23.
- Gross, K., & D'Ambrosio, L. (2004). Framing emotional response. *Political Psychology*, 25, 1-29.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cking, J. E., Stacks, D. W., & McDermott, S. T. (2003). *Communication research* (3rd ed.). Boston, MA: Pearson.
- Khoo, C. S., Nourbakhsh, A., & Na, J.-C. (2012). Sentiment analysis of online text: A case study of appraisal theory. *Online Information Review*, 36, 858-878.

- Kühne, R., & Schemer, C. (2015). The emotional effects of news frames on information processing and opinion formation. *Communication Research*, 42, 387-407.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New York, NY: The Free Press.
- Pang, B., & Lee, L. (2008). Opinion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Foundation and Trends in Information Retrieval*, 2(1-2), 1-135.
- Pollak, J. M., & Kubrin, C. E. (2007). Crime in the news: How crimes, offenders and victims are portrayed in the media.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14(1), 59-83.
- Pritchard, D., & Hughes, K. D. (1997). Patterns of deviance in crime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47(3), 49-67.
-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Vissenberg, J., De Coninck, D., & d'Haenens, L. (2021). Relating adolescents' exposure to legacy and digital news media and intergroup contact to their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Communications*, 46(3), 373-393.
- Wadsworth, T. (2010). Is immigration responsible for the crime drop? An assessment of the influence of immigration on changes in violent crime between 1990 and 2000. *Social Science Quarterly*, 91, 531-553.
- Yamamoto, R. (2012). Bridging crime and immigration: Minority signification in Japanese newspaper reports of the 2003 Fukuoka family murder case. *Crime Media Culture*, 9(2), 153-170.
- Young, L., & Soroka, S. (2012). Affective news: The automated

coding of sentiment in political texts. *Political Communication*, 29, 205-231.

Zhang, L., & Liu, B. (2016). Sentiment analysis and opinion mining. In C. Sammut & G. I. Webb (Eds.), *Encyclopedia of machine learning and data mining*. Boston, MA: Springer.

Zhang, Y. B., Terigele, T., Han, M., Li, S., Yu, Y., & Ruble, R. (2023). Intergroup contact, traditional and social media use, and attitudes toward Chinese people in COVID-19: U.S. college students'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7, 171-191.

투 고 일 자: 2023년 07월 05일

심 사 일 자: 2023년 08월 07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09월 07일

부록

매체별 연도별 분석 기사 수(단위: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전 국 지	경향 신문	13	23	17	24	25	48	45	42	76	85	52	108	180	86	66	147	125	76	79	63	68	1,448
	국민 일보	23	40	25	19	22	25	19	18	35	22	25	34	37	21	87	210	127	85	125	125	131	1,255
	동아 일보	41	37	35	38	31	33	26	20	26	38	39	31	44	31	21	26	18	7	48	52	36	678
	문화 일보	17	47	31	22	25	24	35	49	64	84	62	63	153	134	98	67	39	36	40	34	35	1,159
	서울 신문	21	16	22	30	31	19	20	36	23	37	41	51	87	62	90	142	109	94	104	86	130	1,251
	중앙 일보	23	31	15	22	23	36	20	35	21	35	49	33	84	45	54	72	83	80	90	91	94	1,036
	한겨레	36	50	14	29	15	23	18	33	16	29	20	20	56	29	57	91	100	161	177	253	138	1,365
	한국 일보	32	23	36	38	33	41	24	51	40	54	48	52	151	102	85	88	65	34	55	42	38	1,132
	소계	206	267	195	222	205	249	207	284	301	384	336	392	792	510	558	843	666	573	718	746	670	9,324

지역지	강원도 민일보	56	120	138	113	73	86	32	45	91	77	40	79	138	75	73	81	39	14	10	9	8	1,397
	경남도 민일보	47	49	87	53	54	36	31	65	28	33	36	53	97	48	74	59	28	18	16	14	12	938
	광주매 일신문	0	0	6	67	44	21	33	45	37	14	26	46	117	30	27	24	38	31	31	32	34	703
	매일 신문	51	72	42	56	82	92	86	131	14	14	14	38	41	20	26	26	20	10	15	20	26	896
	부산 일보	113	185	105	110	105	87	80	138	31	33	57	39	61	94	61	40	46	52	75	34	55	1,601
	전북 일보	25	50	44	52	48	60	34	41	42	32	19	49	66	43	42	29	25	27	25	26	23	802
	제민 일보	71	57	34	45	129	96	36	43	67	107	75	78	49	44	65	93	31	12	20	14	7	1,173
	중부 일보	36	32	80	123	173	137	86	135	129	88	71	91	121	80	64	104	96	56	34	19	25	1,780
	소계	399	565	536	619	708	615	418	643	439	398	338	473	690	434	432	456	323	220	226	168	190	9,290
방송사	KBS	13	26	11	20	11	12	15	32	6	21	12	13	15	12	17	21	11	11	47	66	36	428
	MBC	11	9	0	3	10	16	8	27	50	68	39	98	98	54	45	80	71	22	36	63	36	844
	계	24	35	11	23	21	28	23	59	56	89	51	111	113	66	62	101	82	33	83	129	72	1,272
	총계	629	867	742	864	934	892	648	986	796	871	725	976	1,595	1,010	1,052	1,400	1,071	826	1,027	1,043	932	19,886

Abstract

Sentiment Analysis of Foreigner Crime News Reports in Korea

Chang shik Choi

Lecturer, Office for Education Accredi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advent of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ies, the role of the media has come into the spotlight. By providing second-hand experience and knowledge in the formation of images and perceptions of other ethnicities and cultures, the media can be a part of the structure that allows individuals to actively and positively embrace changes in their social environment or to form hostile attitudes. In other words, depending on the image of foreigners and migrants portrayed by the media, individuals are likely to form attitudes towards them. Of particular interest to this study is media coverage of violent crime involving foreigners, which previous research has shown to be reported at a higher rate than the actual crime rate of foreigners. This is not just a matter of more frequent reporting, but also an unrealistic escalating of anxiety and fear of foreigners and migrants, which can threaten the smooth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by reducing acceptance of other races and cultur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19,886 articles from 18 newspapers and broadcasting channels over the period 2000–2020 to determine whether violent crimes involving foreigners were over-represented. First, the quantitative over-represent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proportion of violent crimes against foreigners accounted for 1.88% of all crimes, while the proportion of violent crimes against foreigners accounted for 3.09%. However, over-representation in a sentiment aspect was

not observed. The sentiment analysis of the articles showed that the sentiment index (-0.014501) of foreigners' coverage of violent crim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entiment index (-0.017668) of the related coverage of non-foreigners, indicating that the level of sentimental expression of foreigners' crimes was relatively less negative compared to non-foreigners. In addition, analysis on the difference in the sentiment index of violent crime coverage by media type showed an interesting result that local newspapers covered violent crime the most negatively among media types, and this trend was similar for both native citizens and foreign crime coverage.

KEYWORDS foreigner, violent crime, crime reporting, sentiment analysis, multi-culture